

# 史部主題의 DDC 분류에 관한 연구

현 영 아\*

## <목 차>

- |                      |           |
|----------------------|-----------|
| I. 緒 論               | 2. 雜史類    |
| II. DDC분류의 필요성       | 3. 詔令·奏議類 |
| III. 諸分類法の 發達        | 4. 史鈔類    |
| 1. 四部分類法             | 5. 載記類    |
| 2. DDC               | 6. 職官類    |
| 3. DDC의 수정 및 전개표     | 7. 政書類    |
| 4. 韓國十進分類法(KDC)      | V. 結 論    |
| IV. 四部の 分類 展開        | 참고 문헌     |
| 1. 正史, 編年, 紀事本末, 別史類 |           |

## I. 緒 論

전 세계적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분류법은 문헌분류와 학문분류의 양기류 속에서 서로 영향을 받으며 무수히 발달하였다.

서양의 분류법은 서양의 학문적인 배경 속에서 발달하게 되었고, 동양의 그것 역시 동양의 학문적 배경과 思考의 영향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화 시대를 맞으며 동서양의 모든분야의 자료가 서로 교류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동양의 종래 目錄에 史部로서 분류되었던 많은 자료들을 활용시키려면 이 자료들에 대한 동서양의 주제분류의 적용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즉

\*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자료의 형태, 내용의 언어, 문자 및 자료의 시대적인 구분에 관계없이 同一한 주제에 관련된 자료라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목록편성에 있어서는 물론 가능하면 서가상에 있어서까지도 이는 한곳에 집중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史部의 分類項目중에서 DDC 적용에 가장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되는 正史類, 編年類, 紀事本末類, 雜史類, 詔令·奏議類, 史鈔類, 載記類, 職官類, 政書類 등의 주제에 관하여 현대 분류법 중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이용이 많은 듀이십진분류법(이하 DDC)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전개한 한국십진분류법을 서로 비교하여 DDC의 개정 및 전개방법을 모색하므로써 史部자료에 대한 분류는 물론 그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DDC 분류의 필요성

듀이십진분류법은 1876년 창안된 후 1989년 20판이 출판될 때까지 계속되는 개정판으로 1세기 동안 새로운 문헌에 알맞은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변천하여 왔다. 이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사용이 많이 되는 문헌분류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양학 관계 문헌을 분류하는데도 DDC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1976년 현재 우리나라의 DDC 사용현황은 공공도서관이 11.5%, 대학도서관이 70.1%, 특수도서관이 35.7%이며 KDC와 DDC의 사용비교를 해보면 대학도서관에서 KDC는 양서분류에 27.5%, 동서분류에는 33.8% 사용되었고, 또한 우리 고서를 분류할 때도 DDC가 33.3%, KDC가 21.6% 채택되고 있다. (홍옥자, 1977, 69) 이러한 현상은 DDC의 조직이 간단하고 단순하여 기억하기 쉬워 사용이 편리한 점과 신축성과 조기성이 풍부하며 십진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무난히 전개할 수

있는 점 및 상관색인이 있어 분류하기 편할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DDC는 너무 서구 중심이어서 동양관계자료분류에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964년 듀이십진분류법, 朝鮮十進分類法, 日本十進分類法 등을 참고하여 한국십진분류법을 편찬하였다. 어학과 문학을 접근시키고, 사회과학과 역사는 조기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DDC와 같이 채택하고 그외는 거의 독자성을 가지고 전개한 것이다. 이렇듯 KDC는 DDC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분류표를 제정했는데도, 실제 도서관에서 KDC의 채택이 DDC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DDC가 학문분류가 세밀히 전개되었고,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문의 발전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개정하므로써 새로운 문헌에 알맞은 분류번호를 배정할 수 있게끔 계속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57년 우리나라에 도서관학이 도입되던 당시 도서관학 교육과정에서 분류학에 처음 DDC가 소개되어 보급되었고, 각 도서관에서 도서관 실정에 맞게 동양관계 주제를 전개하여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KDC는 바로 바로 새로운 학문분야의 분류항목을 전개치 못할 뿐 아니라 개정도 수월치 않고, 즉 현대에 새로운 문헌들을 적절하게 분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DDC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도서관이 더 많기 때문에 분류법을 새로 바꾸어 채택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및 동양관계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KDC로 다 교체할 수는 없고, 이들 자료만 KDC를 채택한다 할지라도 결국 분류체계가 둘이 되는 것이다. 이는 같은 주제에서 현대문헌을 검색하기 위해서 DDC로, 또 동양관계문헌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KDC로 이용하게 되는 이중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두 분류체계중 DDC가 포괄적인 학문분야를 세밀하게 전개하고 있는 점과 또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동양관계 분류표를

제정하는 것 보다는 DDC로 동양관계 자료를 분류하면서 그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항목을 전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Ⅲ. 諸分類法の 發達

史部 分野는 원래 동양의 四部分類法の 주제 분류상의 두번째 명칭으로서 이 분류 내용은 正史類, 編年類, 紀事本末類, 雜史類, 詔令·奏議類, 史鈔類, 載記類, 職官類, 政書類 등 王政政治에 필요한 資料들인데, 이들 자료를 위한 분류법들로서 전통적인 四部分類法 및 DDC와 그의 수정 전개표에 대해 약술하고자 한다.

#### 1. 四部分類法

四部分類法の 嚆矢는 魏代의 秘書郎이 宮中藏書를 정리하여 《中經簿》라는 藏書目錄을 편찬하였던 때로 볼 수 있으나(阮孝緒, 序影印本, 1927), 그 目錄은 散逸되어 傳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荀勗이 다시 편찬하였다는 《中經新簿》의 分類法은 甲乙丙丁으로 經史子集의 명칭은 아직 쓰이지 않았으나 네 주제로 크게 분류하고 세분하였다. 그 후 東晉初에 著作郎 李充이 惠懷의 亂으로 흩어진 典籍을 수집하여 《晉元帝書目》을 만들었는데 《隋書經籍志》에도 있듯이(長孫無忌, 經籍志 - 影印本, 1960, 906) 荀勗의 《新簿》를 따랐으나 다만 乙部와 丙部の 내용을 바꾸어 비록 經史子集의 명칭은 아직 사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四部分類法の 순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四部分類法の 토대는 《隋書經籍志》에 이르러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의 類目 설정에 있어서는 舊錄을 비롯하여 可馬遷의 史記, 班固의 漢書, 王儉의 七

志, 阮孝緒의 七錄 등을 참고하여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隋書經籍志의 분류법은 七略, 七志, 七錄을 참고하여 그 장점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한편 폐단도 있었다. 즉, 主題와 體裁가 혼돈되어 있고, 部 아래의 어떤 類에 있어서는 그 概念이 혼잡하고 非合理的이다. 예를 들면, 雜傳에 人, 鬼神, 神仙 등이 함께 分類되어 있고, 譜系를 보더라도 《姓氏譜》, 《錢譜》, 《竹譜》 등이 같이 分類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四部分類法은 隋書經籍志에서 그 토대가 확립되었으며, 그 이후는 各史志 또는 各種의 史志補選과 주로 官修目錄 및 歷代 私家藏書目錄에서 사용되어 발전되었다.

四部法이 清代에 와서 四庫全書總目 200卷의 整理에 適用되므로써 그의 발전은 절정을 이루며, 이의 分類체제에서 史部의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四庫全書總目提要, 影印本, 1971, 1-970)

正史類, 編年類, 紀事本末類, 別事類, 雜史類, 詔令奏議類(詔令奏議), 傳記類(聖賢, 名人, 總錄, 雜錄, 別錄), 史鈔類, 載記類, 時令類, 地理類(宮殿疏, 總志, 都會郡縣, 河渠, 邊方, 山川, 古跡, 雜記, 遊記, 外記), 職官類(官制, 官箴), 政書類(通制, 典禮, 邦計, 軍政, 法令, 考工), 目錄類(經籍, 金石), 史評類.

## 2. DDC

### 1) DDC의 보급

DDC는 현대 주요 분류표로서는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미국, 영국 뿐 아니라 세계 약 130개국에서 이용되고 있다. (Dewey Melvil, 1989, 153)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도서관을 제외한 기타 전체 도서관의 장서 분류에 있어서

DDC가 동서에는 40%, 양서에는 60% 사용되어 평균 45% 이용되고 있으며, KDC는 평균 43.7%가 이용되어 DDC가 더 많이 이용됨을 알 수 있다. (홍옥자, 1977, 13)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DDC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1964년 한국십진분류법 초판이 발행되기 전에 미국의 교육사절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DDC를 보급시키고, 도서관계의 지도자들을 교육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DDC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애용되는 이유는 DDC가 보편적이면 단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십진분류 체계와 탁월한 조기성 및 훌륭한 색인이 있으며, 둘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서관들이 DDC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대차 및 네트워크(Network) 형성이 유리하고, 세계 미국의회도서관에 DDC의 보호육성기관이 설치되어 계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네째 LC카드에 DDC 번호가 기재되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다섯째 많은 참고도서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상으로서 DDC의 세계적 사용의 원인을 언급했으며 이외 그의 변천과정과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변천 및 구성

DDC 초판은 M. Dewey가 미국 Massachysetts주에 있는 Amherse 대학도서관 부관장으로 재직하면서 1876년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Library”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것이다.

이는 총 1000개의 분류항목과 2100개의 색인어가 수록된 42 page의 소책자였는데, 그 당시 다른 분류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관색인이 있어 각 도서관에서 효율성있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오늘날 훌륭한 분류표로 성공하게 되었다. (Comaromi, 1983, 143-144)

이 초판이 간행된지 9년이 지난 1885년에 제2판이 간행되었다. 2판은 초판의 항목 가운데 상당수가 새로 추가되어 특히 형식구분을 위한 表가 도입되었고 색인도 주제색인에서 상관색인(relative index) 색인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3-5판은 3년마다 개정판을 내면서 항목의 큰 변화없이 발행되었는데 제6판은 1899년에, 제7판은 12년 후인 1911년에 그 후, 8판, 11판까지 DDC는 큰 변화없이 개정판 발행이 계속되었다. 제12판은 1243 page나 되는 개정판을 발행하였으며, 제13판은 M. Dewey가 세상을 떠난 다음해인 1932년에 개정판을 발행했다. 1942년에 간행된 제14판은 항목전개가 지나치게 상세하여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으며, 그 후 1957년에 이를 간소화해 수정을 가진 제15판이 간행되었다.

제15판은 세계2차대전 후 학문의 급진적인 발전에 따라 14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행했지만 분류표상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표준판으로 20만권의 장서를 갖춘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찬되었으며, 특히 표준성을 고려하여 표목의 용어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듀이의 독특한 간략 철자법을 일상적인 철자로 대체시켰다.

그러나 분류표상 많은 문제점을 가져와 다시 수정하여 다음해인 1952년에 제15판의 Review판을 발행하였다. 이 Review판은 우리나라에 도서관학이 도입되면서 이를 번역하여 쓰게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DDC가 급진적으로 보급되었다.

제16판의 개정판이 1958년 DDC를 개정한 이래 처음으로 분류표와 상관색인 2권으로 나누어 간행되었으며, 이때부터 2-3개의 주제분야에서 분류표의 전면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는 피닉스표(phoenix schedule)가 시도되었다.

1965년 발행된 17판은 地理細目を 위한 地理區分表(area table)가 도입되어 자국의 우위성(local emphasis)에 따르는 DDC의 고쳐쓰기를 권장하여 세계 모든 나라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개정하였다. (Mevil Dewey, 1965, 55-56)

그 후 1971년의 제18판은 제1권 Introduction, 2권 Schedules, 3권 Relative

Index의 3권으로 간행되었다. 또한 標準細目表 이외에도 文學細目表 (Subdivision of individual literature), 言語細目表 (subdivision of individual language) 등 다섯 종류의 새로운 補助表가 도입되어 열거식 분류체제에 점차적으로 분석 합성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Custer, Berjam A. 1980, 100-101)

제19판은 1979년 제1권 Introduction, Tables (서문 및 보조표) 482page, 제2권 Schedules (본표) 1574page, 제3권 Relative Index (색인) 1217page, 전 3권으로 총 3273page가 되는 분류표로 사회과학분야의 대폭적인 개정을 비롯하여 용어의 현대화와 국제적인 사용을 배려한 점이 특이하다. 또한 이 판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DDC 개정판중에서 1985년 현재, 동 서양의 분류를 위해서 각각 21.6%가 사용되고 있다. (황다미자 1986, 11-62)

DDC의 최신판인 제20판은 1989년에 4권으로 I Table, II·III Schedules, IV Index & Manual로 구성되었는데 이에는 1982년에 간행된 매뉴얼을 축소, 조정하여 새로이 추가시켰기 때문이며 이제까지 7년 간격(Chan, Lois Mai 1981, 221)으로 개정된 것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DDC 20판은 1989년 코마로미(Cormaromi) 등 4인이 뉴욕 알바니(New York Albany)의 OCLC의 부서인 Forest Press에서 4권으로 간행되었으며, DDC의 이용방법 및 20판의 특성과 사용방법, 또 분류에 적용되는 여러 방식 및 용어집을 첨부한 서문과 보조표(Tables)로서 이의 사용방법과 표준형식구분, 지리구분, 시대구분, 문학형식구분, 언어형식구분, 지역국가구분, 언어 등 7개의 보조표와 분류 번호에 추가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항목의 순위가 바뀐 것이나 범위가 축소된 항목을 19판과 20판으로 구분하여 순위의 보조표 1-7까지 본표(Schedules)의 000-999까지 번호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본표는 분류내용으로서 000-999까지 세분하였고, DDC 20판에 새로이 추가된 Manual은 미국의회 도서관 심진본류의 분류방침과 실제를 기술하여, 분류작업에 필요한 안내 및 주기사항을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 3. DDC의 수정 및 전개표

우리나라 학술도서관의 70%가 사용하는 DDC는(홍옥자, 1977, 48) 본래 영미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관계 항목은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DDC를 사용할 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전개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미국우위로 배정된 번호를 한국우위로 바꿔 쓰기 위한 별도의 전개표가 필요하다.

이런 자국우위법(Local emphasis)의 필요성은 DDC 편집위원회에서도 인정하게 되어, DDC 17판에 처음으로 자기 나라에 우위권을 주는 주기(note)를 마련하였다.

이와같은 본표(tables)의 전개 및 수정의 대표적인 유행으로 국회도서관의 듀이十進分類表, 主題表, 主綱表, 主目表附: 東洋關係細分展開表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당시까지 나온 분류표로서는 동서와 양서를 같은 체계로 분류할 만한 적당한 분류표가 없기 때문이어서 1956년 개관 당시 분류표를 정하지 못하고 임시 조치로 동서는 NDC, 양서는 DDC를 사용하여 가정리하였는데 한 도서관에서 2개 이상의 분류표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불합리하므로 1957년에 DDC를 검토하여 동양관계 특히 한국에 관한 미비한 부분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개편 전개한 것이다. 이와같은 국회도서관의 동양관계세분전개표는 사회과학 분야의 법률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세분 전개했다.

그리고 리재철 교수의 「한국 도서관을 위한 듀이십진분류법(제17판)의 전개 및 고쳐쓰기표」 및 「듀이십진분류법의 한국도서관을 위한 전개 및 고쳐쓰기 안」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DDC 東洋關係項目展開表」 등이 있다. 이는 불교관계 주제를 중점적으로 전개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각 도서관은 자기 자료의 특수분야에 맞는 항목을 DDC의 장적인 본표에 대한 신속성의 전개와 조기성을 활용하여 DDC에서 우리나라와 동양관계 주제를 전개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 4. 韓國十進分類法(KDC)

KDC는 1963년 한국도서관협회의 분류분과위원회에서 분류표 편찬사업에 착수하여 1964년에 간행한 우리나라 최근의 현대식 분류법이다.

이 분류법이 발행되기 전까지는 1947년 간행된 朴奉石이 편찬한 《朝鮮十進分類表》가 일반분류법으로 유일하게 채용되어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도서관 등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朝鮮十進分類表》는 項目이 細分되지 못하고 分目이 고립화되어 새로운 항목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1957년 연세대학교에 미국의 피비디 사범대학 교육사절단에 의해 도서관학 교육이 실시되면서 분류법에도 미국적 영향이 미치어 미국도서관에서 실시 보급되었던 DDC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DDC는 구미위주의 분류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에 적합치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분류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DDC를 기본으로 하여, 日本十進分類法, 미국국회도서관분류법(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국제십진분류법(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裘開明編 漢和圖書分類法 등을 참고로 1964년 초판이 간행되었고, 그 후, 1966년에 수정판, 1980년에 제3판이 간행되었다.

3판의 내용개정은 제2판의 뚜렷한 미비 부분과 모순된 내용을 최대한으로 보완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분류표의 조직체제는 큰 변화가 없이 다만 제1판과 수정판은 분류표와 색인이 합본되어 단권으로 간행된 반면 제3판은 본표와 색인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이 KDC가 우리실정에 맞게 분류표를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동양학관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동양학관계의 전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동양학주제의 적용이 부적당한 곳이 있으며 관계되는 주제가 누락되었다. 또한 같은 주제가 분산되어 있고 분류항목에 註記에 의한 분류 안내가 부족하며 동양학관계 항목이 미비하다.

이상으로 史部를 분류하던 四部分類法과 DDC에 동양학관계를 전개 수정한 분류법 및 우리실정을 감안하여 제정한 KDC등을 살펴보았다.

#### IV. 史部의 分類 展開

史部 諸主題에 대해 기존 한국 및 동양관계 분류표들 중에서 KDC를 中心으로 비교 분석하여 DDC의 분류항목 수정 및 전개방법을 보완코저 한다.

##### 1. 正史, 編年, 紀事本末, 別史類

이에 類目은 四部分類法에서는 내용보다 편찬 체제 형식으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비슷하여 한데 묶어서 그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正史類는 紀·表·志·傳의 體制로 편찬된 역사기록으로서 관청에서 표준적인 史書로 편수하였거나 定한 것을 말한다. 紀는 帝王 중심의 일을 기록한 帝紀 또는 本紀이고 表는 年表, 志는 文物制度를 總錄한 것이며, 傳은 傳記를 뜻한다. 이와같이 正史는 그 體制가 紀表志傳의 형식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일명 紀傳體 史書라 하는데 “二十五史” 같은 것이 그 예이다.

編年類는 본시 春秋의 體例를 본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歷史的인 事件은 年代 順으로 찬술된 史書들을 분류하였으니 <고려사절요>나 <국조보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紀事本末類는 歷代의 중요한 사건들을 사건별로 항목을 세워 그 전말 즉 자초지종을 자세히 기술한 형식의 史書이다.

別史는 正史의 한 보조자료로서 正史의 起草에 이용된 역사적 기록이나, 正史의 내용을 증명하는 史料, 또는 正史의 내용에 따르고 같음을 檢校하는데 이용되

는 자료들을 말한다.

위의 주제는 모두 史書로서 그 편찬 형식에 따라 類別로 나눈 것인데 이를 KDC에서는 911 韓國史으로 하고, 註記로서 한국통사 및 문화사등을 포함시켰다. 政史類, 編年類, 記事類, 別事類는 각각 該當 내용의 時代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아래서 즉 911.001 韓國史觀, 911.002 補助學으로 세분하였다.

912는 中國으로 하고 中國通史, 문화사, 年表등을 포함시키고 여기서도 政史類, 編年類, 記事類, 別事類는 각각 해당시대에 분류하도록 하였고, -.001 중국사관, -.002 보조학으로 세분 하였다.

KDC에서는 950이 아시아 극동아시아(General History of Asia Orient or East)의 일반역사로 설정하고 있으며, 951이 중국과 인접국가역사로 되어 있고 한국은 그 아래 951.9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951을 한국역사로 하고 편찬형식에 따라 그 아래서 시대별로 세분하면 될 것이다.

## 2. 雜史類

잡사류는 故事의 사적 고증이나 또는 史書를 읽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로서 중요한 軍國에 관한 기록으로서 한 사건의 始末이나 또는 한때 어떤 사건에 대해 보고 들은 대로 수록한 사사로운 기록들을 분류하였다. KDC에서는 911.0094 야승류로 하고 野史, 史譯, 漫筆등을 포함시켰다.

KDC에서는 앞서 설정한 951 한국역사에 KDC의 세분내용을 참작하여 951.0094에 야승류라 설정하고 野史, 漫筆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 詔令·奏議類

詔令은 왕의 명령이나 論旨, 制誥, 綸音, 敕書, 赦文등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글로서 正史에 참작자료가 되는 것들을 四部分類法에서 분류한 것이니 고문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KDC에서는 911.0091에 古文書類를 설정하고 詔書, 論音, 敦教, 奏議는 신하가 천자나 왕에게 아뢰는 글로서 정사의 시비를 논하여 올리는 奏疏, 疏, 上疏, 彈章 즉 탄원서와 같은 공문서이니 이 역시 KDC에서 911.0091 古文書類에 분류하고 있다.

DDC에서는 이들을 951 한국역사 아래에 951.0091로 세분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 4. 史鈔類

史鈔는 그 내용이 역사를 한 것이나 여러 역사 기록을 한 것을 합한 것 또는 간소하게 가려내어 엮은 것, 문구를 가려 뽑아 번잡한 것을 추려 차례대로 글을 다듬어 초록한 것이니 그 초록한 원본의 내용이 해당되는 곳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즉 朝鮮王朝實錄을 저본으로 하여 초록했다면 그 실록이 분류되는 911.05 조선시대 역사에 넣고 DDC에서는 951.05에 분류토록 하며 《元史節要》는 그 원본과 함께 KDC에서 912.048 元時代史에 분류하고 DDC에서는 952.048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著作에서 특정한 의도를 갖고 특정주제를 발췌한 것, 여러 著作에서 특정주제에 기사를 발췌한 것, 여러 著作에서 특정주제의 기사를 발췌한 것은 원저작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 5. 載記類

載記는 僞史, 霸史라고도 일컫는데 정통 왕조를 일방적으로 割據하여 일으킨 亂의 사적을 기술한 것과 정통 왕조의 紀年을 쓰지 않고 당시 自國이 만든 국호와

紀年을 쓴 나라의 역사나 기록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그 당시 명분위주의 분류이므로 KDC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高麗史는 중국목록에 載記類에 분류되어 있으나, KDC로는 911.04 고려시대사에 분류하며, DDC도 역시 951.04로 분류하면 될 것이다.

## 6. 職官類

職官類는 一曹一司의 故事 등을 다룬 古代 官制나 관리의 敎戒訓誥類 등을 다룬 官箴을 말한다. 즉 度支志, 春官志, 秋官志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니 KDC에서는 351-357 各國중앙행정 및 행정부 아래 한국의 중앙행정 및 행정부 350.2, 350.78로 설정하였고 350.21에 고대관제를 신설하고 있다. DDC는 354.06의 정부 행정에 분류하면 될 것이다.

官箴은 국가관리들이 경계해야 할 것과 그들은 가르치고 깨우치는 내용들이 속하는데 그 예를 들면 <목민심서>와 같이 국가 관리들이 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기록한 것들이다.

KDC에서는 193에 국가 및 정치윤리를 설정하고 그 아래 193.2 史道 즉 관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기록한 것들이 이에 속한다. 또한 350.3 공무원제도에 인사 행정개혁 등이 포함되므로 이에 분류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DDC에서는 172 정치 윤리 아래에 172.2 국가 및 정부의 의무함에 분류하면 될 것이며, 註記에서 시민에 대한 정부 관리들의 의무등을 포함하여 분류하도록 밝히고 있다.

## 7. 政書類

이는 六曹를 中心으로 한 政事關係書로서 通制, 典禮, 邦計, 軍政, 法令, 外交, 考工의 분야가 이에 해당되는데 각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通 制

通制는 문물제도 일반과 歷代制度가 포함되는데 문물제도 일반을 다룬 것으로서 예를 들면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등이다. 이것은 문물제도를 百科全書 식으로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연구 특히 문화사적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KDC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료일 경우 911.0096에 문물제도류를 분류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DDC를 채택한 도서관에서는 東洋部分의 전개가 너무 세분되므로 030 일반백과사전, 類書아래서 분류할 수도 있다.

歷代制度는 全代 또는 一代의 制度를 총괄한 이외에 六職의 제도에 관한 法制章典이 곁들여 수록된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등을 들 수 있다. KDC에 있어서 이 자료들을 위하여 350 행정아래 350.2 행정조직, 고대관제아래에 350.219 역대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DDC에서는 951.9를 951.0096 문물제도류나 354.51 행정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 2) 典 禮

典禮는 예조에서 주관하는 帝制와 朝章관제의 것으로 한 나라의 의전에 해당하는 바 KDC에서는 史料의 일부로 보고 우리나라 것은 즉 《국조오례의》 같은 것을 911.0093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DDC에서는 951 한국사 아래 951.0093으로 분류하면 될 것이다.

### 3) 邦 計

邦計는 度支가 담당하는 재정관제로서 KDC에서는 329 재정아래 329.09 各國의 재정으로 세분하고 그 아래서 910-979같이 지리구분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재정은 329.0911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재정은 329.0911로 하면 된다. 또는 320.9 경제사 아래서 지리구분할 수도 있다. DDC상에서는 336 재정 아래 336.09 각국의 재정으로 세분하거나 330.9 경제사 아래의 지리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4) 軍 政

軍政은 역대 양병제도에 관한 것으로 KDC에서 분류방법을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군관계도서관에서는 391.09 軍事行政史 아래서 지리구분할 수 있겠고 둘째, 일반도서관에서 시대사에 분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일반도서관에 있어서 양병제도의 史的高찰은 주로 역사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軍政의 일반을 다룬 것으로서 시대 또는 지역별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專制의 특수자료로 보고 우리나라 것은 911.0099 특수사에 분류할 수도 있다. DDC에서는 355 군사학 아래 355.6 군사행정으로 또는 951.0099로 특수사, 951.01-07 시대구분하고 951.1-951.99 지방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 5) 法 令

法令書는 역대 관청의 律令 法典 및 詞訟 刑獄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律令은 《唐律》《大明律》 같은 종류로서 KDC에서 360.9 고대법령, 법제사 아래서 지리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御定欽恤典則》은 360.911, 중국의 《大明律直解》는 360.912가 된다. DDC에서는 340.109 법제사에 분류된다.

#### 6) 外 交

이는 사대교린 관계서로서 주제별로 처리할 때는 KDC의 349.1-.79 각국의 외교에 분류하고 조약집은 361.3 국제조약아래서 지리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를테면 김홍집의 《修信使日記》 박영효의 《使和記略》은 349.11에 분류하고 DDC에서는 327.3-.9 각국의 외교관계에 분류하면 될 것이다.

또한 조약집은 341.3 국제관계에 분류토록 한다. 그러나 조약집을 제외한 外交書를 역사에서 분류코자 할때는 900 아래 나라별로 시대별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도

있다. 《修信使日記》《使和記略》을 DDC에서 951.059 고종 및 순종시대사로 수정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 7) 考 工

考工관계서는 工作 또는 예를 들어 궁전을 짓는다거나 성벽을 쌓는등 營造에 관한 자료이며, 이는 기술과학의 분야에 속한다.

이를테면 《城郭營造》는 549.1 궁전, 廟社, 城郭에 《造圖說》은 543.3 벽돌기와 제조에 분류한다. 즉 KDC에서는 기술사로 보고 509 技術史아래서 지리구분하거나 500 기술과학 아래에서 해당주제에 분류하는데, DDC에서도 509 기술사아래 지리구분하거나 600 기술과학의 해당주제에 분류해야 할 것이다.

## V. 結 論

이상으로 본 연구는 四部分類法상의 분류 항목인 史部資料의 현대적 분류 및 그 활발한 이용을 목적으로 DDC에서의 그 분류방법을 살폈다.

DDC가 현재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그 이용률이 KDC보다 높고, 동양자료분류에도 DDC를 더 많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는 DDC가 서구 위주이나 그 조기성과 신속성의 풍부함과 自國에 맞게 전개시켜 사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시대에 맞게 새로운 학문분야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四部중 政史類, 編年類, 記事本末類, 別史類, 雜史類, 詔令·奏議類, 史鈔類, 載記類, 職官類와 政書類의 通制, 典禮, 邦計, 軍政, 法令, 考工之屬에 관해서 각기 그 주제 내용을 약술하여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 그 해당주제의 분류방법으로 KDC를 참작하여 DDC상에서의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 등의 방법을 통해 史部주제의 현대적 분류를 시도해 봄으로써 현대서적과 함께

동일 주제하에 어떠한 형태나 시대를 막론하고 활발히 이용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 참 고 문 헌

- 남태우. "DDC 20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 관한 연구(전남대). 창간호, 1990. pp.73-104.
- \_\_\_\_\_. 四庫全書總目提要. 臺北 : 臺灣商務印書館, 影印本, 1971.
- 임승양. "한국십진분류법의 동양학 관계 항목개정에 관한 연구.". 미간본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5.
- 長孫無忌 等撰. 隋書. 臺灣 : 開明書店, 影印本, 1960.
-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70.
- 황다미자.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자료의 주제 분석 체제 현황에 관한 연구.". 미간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 현영아. "四部分類法の 分析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7.
- 홍옥자. "한국도서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분류법의 실태에 관한 연구.". 미간본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7.
- Batty, David. "Dewey Abroad : The International Use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the Library of Congress* 33, 4(1976), pp.300-310.
- Corden Stevenson and Judith Kramer-Greene. *Melvil Dewey : The Man and the Classification*. New York : Forest Press, 1983.
- Dewey, M.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Relative Index*, 20th ed. New York :

Forest Press, 1989.

Foskett, A.C. *The Subject Approach to Information* 4th ed. London : Clive Bingley, 1982.

Hés baa-aack. Dewey lives! in the DDC 20 (1989) *American Library* (January)

Lois Mai Cha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 An Introduction*, New York : McGraw Hill Book, 1981.

Paulson, P.J. *Publishers Foreword in DDC 20th ed.* Albany : Forest Press, 1989.

## A Study on Application to DDC of Historical Documents Division

Young-ah Hyun\*

###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help librarians to classify the traditional oriental material of the dissertation concerned with that, to serve researched user that literatures which have been field among various traditional bibliographies.

So,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overviewed the methods of classification in the DDC that to promote current classification and to use flourishing of historical documents division.

---

\* Professor, Dept. of Library Science, Myoung-Ji University